

『大義覺迷錄』 과 조선 후기 華夷論

중세 동아시아 非漢人 지식인의 華夷論

雍正 6년(1728) 曾靜逆謀事件을 통해 가시화된 한족 지식인의 ‘華夷論’과 그에 대한 雍正帝(1678~1735, 재위 1722~35)의 변론인 大義覺迷錄이 조선 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朝淸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

大義覺迷錄과 雍正帝의 華夷論

大義覺迷錄은 湖南省 永興縣의 漢族 무명 서생인 曾靜(1679~1736)의 反淸 역모사건에 대한 淸나라의 만주족 황제인 雍正帝의 변론선전서

雍正帝는 上諭 10편에서 특별교지를 밝히고 증정의 訊問과 口供의 형식을 빌어 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증정의 반성문 歸仁說 을 포함.

증정의 知新錄은 淸초의 주자학자 呂留良(1629~1683) 四書講義의 영향을 받음.

知新錄內云: ‘如何以人類中君臣之義, 移向人與夷狄大分上用. 管仲忘 君仇, 孔子何故恕之? 而反許以仁. 蓋以華夷之分, 大於君臣之倫; 華之與夷乃人與物之分界, 爲域中第一義. 所以聖人許管仲之功.’(大義覺迷錄 권2 장10 뒤.)

雍正帝는 ‘華와 夷’의 구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華夷분별의 ‘기준’으로 仁·義·綱維·禮法를 내세워 華夷의 분별을, 지역·종족이 아니라, ‘예의’ 로 설정

“逆書云, ‘夷狄異類, 買言如禽獸’云云, 設不論仁虐, 第以所生之地, 妄分中外

“天下一家, 萬物一源”와 “中華之外, 四面皆是夷狄”의 갈등

조선의 大義覺迷錄 논평과 조선후기 華夷論

韓元震(1682~1751)의 名分論과 李瀾(1681~1763)의 內華論

한원진은 송시열처럼 화이분별에 다른 정통론의 입장에서 대의각미록 을 비판하고 여유량을 추송. 그러나 동시대의 이익은 대의각미록의 雍正帝 조서를 인용하면서 雍正帝의 유가적 정책 및 발언들을 긍정적으로 기술

北學派 華夷論의 두 사례 : 李贍(1737-1795)과 朴趾源(1737-1805)

이贍 燕行記事의 聞見雜記 下는 呂留良과 曾靜 및 雍正帝의 覺迷錄 등을 논평 淸초의 의관이나 문자옥 및 왕위찬탈사건 및 황제의 독재정치를 강하게 비판 순치제, 섭정왕 및 강희제를 명의 제도를 계승하고 중화 문명을 보존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雍正帝를 강하게 비판.

淸초가 명태조에게 제향을 올리게 하고 유가적 도리에 근거해서 통치를 한 것은 증정역모사건에 대한 대의각미록 간행과 마찬가지로, 만주족이라는 수적·문화적 열세를 벗어나기 위한 증원의 한족 통치 전략으로 이해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이贍과 달리 증정역모사건에 대한 우호적 해석이나 雍正帝 비판이 없음. 오히려 증정역모사건을 비롯하여 雍正帝 당대에 중요한 문자옥을 일으킨 한족 문사들을 비판적으로 기술

비현실적 대청관과 관념적 북벌론을 비판

박지원이 “春秋만 떠들면서 尊華攘夷의 空談”만 하는 조선 사대부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중국 문사인들 어찌 이런 마음이 없을 것인가”라며 ‘治積’을 ‘惡政’이라 선동하는 年羹堯, 查嗣庭, 曾靜 등을 비판

조선의 소중화주의자나 청조의 반청 한족 문사들을 동일한 ‘尊華攘夷’의 지역적·종족적 화이론자(중화주의자)로 상징

박지원의 견해는 옹정제가 대의각미록 에서 所出之地가 邊方이라 하더라도 ‘예의’만 있으면 구태여 ‘華’와 ‘夷’를 구분할 필요없다는 주장과 동일

‘조선의 박지원(북학과)과 청조의 옹정제’ 對 ‘조선의 소중화주의자와 청조의 반청 한족 문사’ : 朝淸간의 대립적 진영이 국가가 아니라 ‘중화’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 형성

네 개의 ‘中華’와 보편주의적 이념으로서의 ‘華’

1. “中華之外, 四面皆是夷狄” 華夷의 변별기준을 지역·종족
2. “天下一家, 萬物一源” 華夷의 변별기준을 문화
3. 조선의 소중화: 명조 멸망 이후 명조의 ‘중화’가 한족 왕조가 아닌 조선으로 계승되었다는 주장으로, ‘중화’는 한족 왕조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여유량-증정의 한족 문사들의 주장과는 근본적 차이
4. 박지원 및 북학: 소중화주의의 문화중심주의적 화이관을 계승하되 실사구시적 안목에서 청조[夷]의 문물[華]을 ‘北學’해야 한다는 주장

소중화주의-위정척사/실학-동도서기